

셰익스피어의 역사극 **Richard II**에 나타난 비극성
(**Tragic Aspects in William Shakespeare's Richard II**)

김 동 율 (Kim, Dong-youl)⁴⁾

Although Richard II, a historical play, is based on a historical sequence, we try to show that this play employs some aspects of Shakespearean tragedy unlike other ordinal historical play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One is to discuss the dual personality of Richard II, who reinforced his kingship borrowing from a power of God. The other is to show that his dual personality brings about the tragedy in this play. This tragedy comes from both a characteristic flaw of Richard II and attitudes of characters around him.

I

*Richard II*는 *The Life and Death of King Richard the Second*란 제목으로 출판되었고 Shakespeare의 사극중 두번째로 등장할 뿐 아니라 Shakespeare가 영국정치와 그에 따른 사회형성기에 관한 지속적으로 가진 관심을 반영한 작품으로 사극에 기초를 두고 있다. Lancaster극의 초기극에서처럼 어떤 의미에서 이 작품의 초점이 개인보다는 국가적인 문제에 맞추어져 있으면서 사극의 특징을 담고 있다. 관객은 작품을 통해 왕권남용으로 인한 불만이 번지면서, 실질적인 전쟁의 모습은 담고 있지는 않지만, 왕국이 두 진영으로 나뉘지는 무서운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작품에 나오는 장소적인 배경도 영국국토(Gloucestershire, Coventry, Wales, Bristol, Pomfret Castle, Winsor)와 런던의 곳곳에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고 등장인물도 마부와 정원사에서 왕과 왕비에 이르는 다양하고도 수많은 사회계층을 담고 있다. 또 극의 대단원부분에서 주요관심사가 몰락한 군주라는 개인에 대한 운명이 아니라 왕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그 사건의 상처

4) 한국해양대학교 영어과 시간강사

를 치유하려는 권력의 전이가 공공의 질서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극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Richard II는 개념상으로 사극보다는 비극에 가깝다. 2절판 이전에 나온 다섯 권의 4절판에 *The Tragedei of King Richard the Second*란 제목이 붙여져 있고 줄거리 또한 동정이든 경멸이든 Richard에 관심이 집중되도록 짜여져 있다. Richard는 본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인물이지만 Pomfet성에서의 독백을 통해 깨달음의 순간에 이르는 인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전의 Richard III와 Titus 그리고 이후에는 Romeo와 Brutus에 비견되는 비극적인 인물이다. 작품에서 Richard에 대한 성격묘사는 Bolingbroke에 의한 도전과 폐위 그리고 그에 따른 그의 몰락에 대한 필연성을 암시한다. 또한 Richard II는 그가 겪는 수난을 미화시키는 시적 수사와 슬픔을 받아들이는 재능으로 인해 공포가 아니면 연민을 쉽게 자아내는 인물이다.(Chambers 91) 물론 그 슬픔이란 대부분 자기연민적인 것이지만 자기의 수난을 강조함으로써 관객이 몰락을 부채질하는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하게 하게 하고 자신과 운명을 같이하는 주변사람에 대한 근심어린 애정을 보이게 한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완전한 비극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이 작품에는 비극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파멸과 죽음 뒤에 따른 대단원의 통찰력이 없다. Richard에게는 Shakespeare의 비극에서 기대되는 반대자에 대항하는 물리적인 힘이나 완강한 주장이 부족하다. 그러나 Shakespeare는 이 실험적인 작품구조를 통해 등장인물과 관객의 관계에 큰 관심을 보인다. 외부적인 힘이 주인공에게 힘을 실어준다. *Richard II*에서는 주인공이 살해되기 직전에도 단 한번의 독백만을 할 정도로 외부로부터 전개되면서 극의 초점은 시종 주인공에 집중된다.(Halliday 81) 이를 위해 등장인물의 진행될 때 Richard의 직책상 실책을 도덕성 결핍과 짝을 짓거나 신하가 신성한 왕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왕권의 신성함을 강조하면서 다른 때는 왕의 개인적인 비탄을 강조함으로써 Richard라는 인물에 비극성을 부여한다.

Richard는 Ernest Kantorowics의 저서인 *The King's Two Bodies*라는 이름처럼 Elizabeth시대 사람들이 상상하는 대로 신의 대리자로서 중세왕위를 둘러싼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타락되어 있다. 즉 그는 개인적인 욕망에 영합하려는 나머지 이상적인 지도자로서 자질인 용맹성과 결단력 그리고 왕국의 안전이라는 중대한 관심 등이 부족하다.

이런 이중성을 융합하기 위해 Richard의 상대역인 Bolingbroke은 강력한 이미

지로 극에 등장한다. Bolingbroke은 개막장면부터 등장하여 1막 끝부분에서는 왕과의 투쟁이 불가피하도록 되어 있다. 동시에 그는 신의 임명자에게 대항하는 정치적 찬탈자에 지나지 않고 그 이유도 처음에는 확실하지 않고 애매하게 진행된다. 나중에는 관객이 Bolingbroke이 자신의 상속권을 방어하기 위해 그리고 왕을 감싸고 있는 간신에 대항하기 때문에 그를 단호히 비난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이유를 정당화하던 간에 극중에서 확립된 도덕적 정치적 가치에 도전하는 인물로 관객에게 인식되어지는 한, 관객은 그에게 심각하게 몰두할 수 없다. 따라서 관객이 연민과 함께 경멸의 눈빛을 보낼 곳은 Richard밖에 없게 된다.

Richard는 Shakespeare가 창조한 가장 복잡한 인물로 그의 명백한 권력남용이 Henry의 소극성보다 더 관객에게 경멸적으로 비취었다면 그만큼 그의 감수성과 상실감은 큰 동정을 일으킨다. 게다가 Henry는 마키아벨리적인 Gloucester공작과 관심의 초점을 공유하지만 Richard는 단 한 명의 중요인물로 Lancaster계 통치자보다 훨씬 능가하는 정서적인 면에 대한 관심을 자아낸다. 그 관심은 Brutus나 Hamlet에서처럼 깊은 내적인 성찰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Romeo and Juliet*의 경우처럼 주로 외적인 요인에 의해 이끌려지고 발전한다.

이런 이유는 방탕한 왕을 왕권신수설이라는 종교적, 정치적인 상황에 설정한 결과이고 지도자에게 부족한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듯하면서도 분명하지 않는 인물과 병치해 다양한 방법으로 왕이 처해 있는 딜레마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많은 인물이 이 두사람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Richard란 성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그가 위대한 인물로 등장될 수밖에 없는 중세사회의 현실을 살펴보고 주인공의 내적인 결함보다는 외적인 요인 속에서 Richard의 비극성이 부각되는 이중적인 구조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Richard와 그의 상대역인 Bolingbroke의 인물분석을 통해 Richard가 갖는 이중적인 비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Shakespeare비극의 특징이 그러하듯이 위대한 인물의 몰락은 카타르시스를 일으킨다. 위대한 인물인 왕의 권위는 신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 작품에는 당시 시대상에 따라 신의 권위가 철저히 반영되어 있다. 신성한 신의 의지는 그의 대리

인인 왕을 통해 직접 작용하고 이런 관계는 Richard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언급된다. 마지막 장면에서도 Henry왕이 양심의 가책을 받음으로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한다. 비록 왕의 정치권력에 Bolingbroke은 대항하지만 그 목적을 위해 악행을 즐기는 Richard III나, Iago와 Edmund처럼 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중에 그가 왕위에 오를 때 신의 이름으로 즉위한다고 말한다. 이런 가치구조는 Mowbray와 Bolingbroke가 되풀이 말하듯이 신과 왕에 대한 봉사에 기초한 기사도 정신이 강조되면서 더욱 공고히 된다. 따라서 이런 종교적인 배경에서 Richard가 왕의 위치에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는 없다.(Rabkin 81) 하지만 이런 배경 외적인 면으로 Richard란 인물 자체에 대한 관객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극이 복잡해진다. 개막장면에서 Richard에 대한 관객의 첫인상은 신하인 Mowbray와 Bolingbroke간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위엄있고 균형잡힌 왕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 장면의 끝부분에서 그가 유년기의 섭정자인 Gloucester의 살해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의 씨앗이 뿌려지고 나중에 왕실의 연루사실이 확실시되면서 첫인상은 변하게 된다.

이런 인상의 변화는 Richard의 성격이 의도적으로 더디게 그려지는데 호의적인 인상이 심어진 다음에 결점들이 흐릿하게 드러나다가 나중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순서와 함께 일어난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왕권찬탈이란 Bolingbroke의 의도에 대한 첫번째 단서와 함께 왕권에 대한 특유의 경계심을 갖게 된다.

1장에서 극의 이중성은 Gloucester살해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Bolingbroke의 고발에 대한 Mowbray의 반응에서 비롯된다.

‘For or Gloucester’ s death, I slew him not, but to my
own disgrace neglected my sworn duty in that case.’
(I, i, 133-4)

Mowbray는 Gloucester 살해 음모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다던가 살인자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한다. 하지만 이 말의 의도를 애매하게 하면서 Richard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흐릿하게 드러내려는 Shakespeare의 속셈이 있는 것 같다. 이 장면은 삭제하거나 서로 노려보는 것으로 처리해도 그 말의 의미를 함축할 수 있지만 Richard와 Mowbray, Richard

와 Bolingbroke간의 관계를 전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이 장면은 Holinshed의 설명에 사소한 것이지만 중요한 수정을 함으로 연대기의 재료를 극의 소재로 만드는 Shakespeare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Gloucester의 살해와 관련한 Bolingbroke의 고소에는 Richard가 개입되어 있다는 말은 없다. 하지만 미망인 Gloucester공작 부인이 남편의 죽음에 Richard의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Gaunt에게 복수와 정의를 촉구하지만 Gaunt는 신의 대행자인 왕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서 3장의 Bolingbroke과 Mowbray 결투장면에서 왕과 Mowbray의 살인에 대한 관계가 은밀히 드러나고 모든 관심은 왕이 Mowbray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집중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개된 Richard와 Bolingbroke간의 투쟁, 즉 Bolingbroke이 왕의 추방선고에 대항하여 법을 어기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형태를 취하면서 치열한 투쟁이 강조되어질 만큼 1막에서 피한 Shakespeare의 의도는 Bolingbroke의 추방장면을 신빙성있게 만들려는 것이다.

Holinshed는 Bolingbroke과 Mowbray간의 싸움에 대한 서술로 그 빌미를 제공했지만 Richard가 이들에게 적대하는 특별한 동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역사가들도 Bolingbroke가 자신사이의 잠재적인 반감을 막연하게나마 드러낸 Mowbray에 대한 고소에서 Richard가 화를 냈다고만 말한다. Holinshed에 따르면 피고 입장의 Mowbray는 살해사건의 책임을 묻는 Bolingbroke의 고소에 대답하지 않고 즉시 자기방어적으로 왕의 이름을 거론한다. 또 그는 Calais지방의 병사에게 돈을 주지 않고 국고를 유용한 혐의를 부인할 뿐이다.(Hosley 69) 나중에 Mowbray에게 종신추방선고를 내릴 때 Richard는 그가 말로써 왕국에 분쟁의 소지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군대에 돈을 주지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점은 왕과 그의 사촌인 Bolingbroke간의 전개관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Shakespeare는 이런 장면을 빼고 추방에 대한 동기부여를 두사람의 분쟁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만 했다. Mowbray와 마찬가지로 Bolingbroke을 단순히 화해하라는 왕명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추방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Richard는 Bolingbroke이 이미 왕권에 직접 도전하고 자신의 권위와 자존의 기반을 위태롭게 한다고 믿어야 했다.(Richmond 124) 이런 확신으로 둘의 추방은 필연적이게 된다.

이러한 동기부여를 보다 명확히 해주는 장면이 이어 나오는데 왕이 징수권을 팔기로 결정하면서 숙부인 Gaunt의 죽음으로 애란과의 전쟁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숙부의 아들인 Bolingbroke가 마음에 걸린다. 이는 신하와의 대화에서 ‘high Herford’의 뻔뻔함을 비난하며 추방길에 오르는 Bolingbroke의 마음을 알아오라고 그를 헐뜯는다.

‘Courtship to the common people, how he did seem to
dive into their hearts with humble and courtesy.’

(I, iv 24-6)

Richard는 이 장면에서 Bolingbroke의 인간성에 대해 갑자기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개막 이래 계속 고조되어온 적의를 말로 나타낸 것일 뿐인데, 이런 알력의 근거는 첫째 장면에 나온 Mowbray란 인물과 수수께끼같은 그의 말을 통해 미묘하지만 확실하게 생겨난다.

이 알력관계는 Mowbray가 Gloucester를 죽이지 않았지만 신하로서 의무를 등한시했다는 말에 화를 내며 내뱉은 말에서 시작된다. Richard는 Bolingbroke의 고소내용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Mowbray가 모든 것을 폭로하도록 만들지도 모를 문제인 것을 알아채고는 사촌인 Bolingbroke에게는 친절히 대하고 신하 개개인에게 말을 건넨 정도로 관대하고 자비롭게 행동한다. Bolingbroke이 Mowbray에 대한 고소장을 읽을 때 Richard는 ‘How high a pitch his resolution soars!’ (I, i, 109)라고 말하면서 그 공격이 자신에 대한 것인지 의심하면서도 Bolingbroke이 비록 왕족이지만 공정히 경청하겠다고 Mowbray에게 약속하면서 객관성을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Mowbray가 ‘sworn duty’에 대한 말을 하며 사려 깊지 못하게 최종적인 책임이 왕에게 있다는 것처럼 왕을 연루시켜 문제를 심각한 국면으로 이끈다. 게다가 왕이 그 전반적인 문제를 서둘러 무마시키려 했다는 말을 덧붙인다. Mowbray는 Bolingbroke이 자신의 고소가 어디로 떨어질 것인가를 즉, 왕에게 떨어질 것을 깨닫고 감히 그 문제를 더 이상 꺼내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실수였고 영구추방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Richard는 이후 Mowbray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는다. Mowbray가 왕의 화해주선을 거부했을 때 Richard는 화를 내고 Coventry에서

왕은 Bolingbroke과의 결투에 앞선 왕의 축복 요청장면에서 Mowbray에게 단 두 줄의 무뚝뚝한 반응을 보인다.

'Farewell, my lord, securely I espy virtue with valor
couched in thine eye.' (I, iii, 97 - 8)

이와 대조적으로 Bolingbroke의 요청에 대해서는 단상에서 내려와 그를 꺼안기 까지 한다. 물론 이런 장면은 Holinshed에 나오지 않는다. 이를 미뤄 Mowbray에 대한 왕의 반응은 애정어린 것이 아니고(Palmer 130) 몇 행 뒤에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유형을 선고받는데 관객은 Mowbray의 부주의한 말이 Richard에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그때부터 싹트는 불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왕의 추종자인 Mowbray가 그 선고는 'All unlooked for from your highness' mouth' 라며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말은 당연한 것이지만 'within my mouth you have enjailed my tongue' 라는 그의 마지막 말은 무심코 한 말이 아니라 Richard와 Bolingbroke의 관계에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

최소한 이 때부터 살해에 대한 고소가 왕에게 미치게 되고 결투를 취소하는 의미로 자신의 장갑을 거두어들이면서 Mowbray에 대한 고소를 취하지 않는 데에 관해 Richard가 왕권을 모욕하는 것으로 또는 반역행위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Bolingbroke은 깨닫게 된다. Coventry에서 Bolingbroke에 대한 왕의 은총은 공적인 이미지를 위한 과대보상심리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Bolingbroke의 추방은 Mowbray의 경우처럼 극에서 그럴듯하게 전개된다.

왕권남용과 그것으로 비롯된 Bolingbroke의 불법적인 귀국에 대해 묘사한 Holinshed의 이야기에는 이런 상황과 관련된 어떠한 관점이나 동기도 나타나 있지 않지만 Shakespeare는 드라마에 필요한 인물이나 개개인들간의 갈등을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Mowbray의 말을 통해 이런 소재를 만들어낸다.

C. H. Herford가 Mowbray의 대답을 생각해내며 두 개의 인용문을 연대기에서 끄집어냈는데 하나는 실제로 벌어지려는 Bolingbroke과 Mowbray간의 결투장면 바로 앞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 장면이다. Holinshed는 Mowbray가 처음 Gloucester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the earle prolonged time for the executing of the kings
commandment, though the king would have had it done
with all expedition (2 : 837)

나중에 역사가들도 Richard의 폐위와 Bolingbroke의 권력장악에 따른 재판에서 Sir John Bagot은 Mowbray가 Gloucester를 죽이지 않았고 왕과 귀족의 명령을 어기고 3주동안 그를 살려두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3 : 5)

두개의 인용문에서 Richard의 죄상은 확실하고 특히 Shakespeare는 두번째 인용에서 결정적으로 이 극을 극적인 순간으로 몰고가는 Mowbray의 대사를 발견했다. 결과적으로 Mowbray의 행동은 Bolingbroke의 성격전개와 도입단계에서 비치는 그의 야심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작용한다. 그리고 Bolingbroke과 Mowbray의 추방에 대해서는 커져가는 Richard의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득력 있게 동기가 부여된다.

III

Richard는 철저히 이중성을 가진 인물로 한 인간과 희생자로서 극이 진행되면서 그 주위에 있는 다양한 인물이 관객의 동정심을 자아낸다. 예를 들면 Richard의 왕권남용을 강조하며 비판하는 장면이 2막 1장에 나오는데 Gaunt가 죽어가면서 왕에게 왕의 의지가 이성적이지 못하고 국토나 토지가 보잘것없는 농장처럼 대여되고 말았다고 간언한다. 그는 왕이 자신보다 더 큰 병에 걸렸다고 말한다.

Thy death-bed is no lesser than land,
Wherein thou liest in reputation sick,

.....

A thousand flatterers sit within thy crown,

.....

Landlord of England art thou now, not king.

(II, i, 95 - 6, 100, 113)

그의 마지막 흑평에서 그의 형인 Gloucester의 살인자로 Richard의 이름을 직접 거론되고 이 사실은 38행뒤의 York말에서도 확인된다. York는 당연히 장자인 Bolingbroke에게 돌아갈 Gaunt의 유산을 왕이 몰수하려하자 왕이 자신도 그렇게 왕위에 오른 장자상속법을 스스로 어겼다고 비난한다. 귀족들 역시 같은 장면에서 왕의 비위를 맞추는 아첨꾼에게서부터 백성에게 가증되는 중세에 이르기까지 Richard를 비난한다.

이어지는 장면에서(II, i) York는 영국의 통치자로서 Richard가 재산을 몰수하는 등 포식의 대가로 병환을 초래했고 이 때문에 귀족들은 도망가고 백성들은 냉담해져버리는 현실에 비통함을 토로하며 왕에 대한 의무감과 왕이 부당하게 베푸는 친족에게 대한 사랑사이에서 가슴이 찢어진다고 하며 현재 처한 비참함보다 왕이 내 목을 치는 것이 더 낫다면서 Gloucester살해에 대한 왕의 책임을 공공연히 거론한다.

3장에서도 Bolingbroke은 자신에게서 재산과 왕족권을 빼앗은 왕에게 비슷한 고소를 한다. 4막 1장에서도 Richard가 정치적 살해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는데 이는 왕과 함께 누가 살해를 했는가에 대한 귀족간의 논쟁에서 밝혀진다.

하지만 이런 사극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Richard에 대한 동정적인 모습은 주변 인물에 의해 주로 부각된다. 주변인물들은 관객의 관심을 Richard의 이런 그의 결점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예를 들면 York와 Carlisle은 반역자와 반역행위는 똑같이 즉결재판을 한다는 왕권의 종교성을 계속 강조한다. 특히 York는 쫓대기 없이 우유부단한 인물로 낙인이 찍힐 만큼(Sen Gupta 117) Richard의 결점을 흐리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Berkeley성에서 York는 Bolingbroke이 불법적으로 귀국한 것은 성유를 바른 왕에게 잘못하는 일이라고 비난한다. 나중에 Flint성에서도 그는 Bolingbroke에게 신성한 왕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신성에 대한 강한 주장은 Bolingbroke이 왕위에 오르겠다고 선언하는 Westminster Hall에서다. Carlisle은 Bolingbroke을 자신의 왕에게 감히 심판을 내리는 신하로 더러운 반역자라고 선언한다.

The figure of God's majesty, His captain, steward,
deputy, elect. Anointed, crowned (IV, i, 125 - 7)

동시에 Richard의 고통과 비참함을 지켜보는 인물들은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왕에게 관객의 동정을 끈다. 또 3차례나 걸쳐 나타나는 왕비의 애정은 왕의 좋은 점들을 돋보이게 한다. 먼저 왕비는 애란에 있는 남편의 안전을 염려하며 그리운 왕에게 이별을 고한 대가로 비통이라는 손님을 맞아야 하고 그 비통은 나중에 왕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정원사들의 대화를 엿들음으로써 깊어진다. 그리고 London의 거리에서 왕과의 마지막 만남의 장면은 가장 통절하다. 그녀는 자신에게는 진정한 왕의 왕비로서 그가 그녀의 아름다운 장미이자 영예의 도표이며 가장 화려한 여관이다. 왕이자 남편인 그와 헤어지면서 그녀는 슬픔으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 가장 드러내 놓은 적들중 한명인 Northumberland조차 Flint성에서 왕의 슬픔과 비탄에 감동된다.

무엇보다도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은 London에서 Bolingbroke이 승리의 행진을 할 때 왕이 굴욕적으로 치욕을 당하는 모습을 York가 자기 부인에게 말하는 장면이다. 그 누구 한사람도 '왕을 도와주소서' 하고 외치지 않았고 왕의 귀국을 환영하는 말도 없었으며 그의 머리에 흙이 던져졌을 때 그는 인내를 나타내는 듯한 미소를 머금은 동시에 비통의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고 한다. 마지막 장에서도 마부가 감금된 전주인인 Richard를 방문했을 때 왕이 항상 타던 얼룩 털의 말을 타고 즉위식행진을 한 Bolingbroke에 대해 비통함을 말하면서 이와 유사한 애정을 나타낸다.

Shakespeare는 일종의 합창으로 말을 표현하는 Choric Commentary를 전개 하면서 Richard를 전통성은 있으나 방종해서 버림을 받아 수난 당하는 왕으로 보도록 한다. 중심역할을 하는 인물들도 그의 재난에 대해 말이 많다. 그 대사는 재미있게도 이중성의 긴장을 유지시킨다. 관객은 그가 솔직하게 나타내는 비통함에 동정을 느낀다. 왜냐하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고통이 무대에 내적으로 표현됐을 때 그것에 동정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게다가 Richard의 탁월한 시적 대사를 구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3막 2장에서 애란으로부터 돌아온 Richard가 고국에 대해 부모와 같은 심정을 보일 때 관객은 동정적이게 된다. 그는 아이와 오래 떨어졌다가 상봉하는 어머니 같이 눈물과 웃음이 뒤범벅이 되어 국토와 인사를 한다. 하지만 자연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순진한 상상과 Bolingbroke이 견딜 수 없는 태양에 자신을 비유함으로써 관객의 관심과 그에 대한 존경은 사라지고 만다. 또 가신인 Bushy와

Green이 항복했다고 믿을 때 나타난 분노에도 동감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그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보이는 비탄은 감동적인 것이다. 이처럼 Richard는 비극의 주인공으로서 모습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몰락하는 성격적인 약점을 동시에 지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Richard가 땅바닥에 앉아 왕들의 죽음에 대한 슬픈 이야기나 하자는 서정적인 그의 말은 동정적이지만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버리고 Flint성에서 죽어버리겠다는 나약한 말에 동정적인 마음은 사라진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3막 3장에서 벌어진다. Bolingbroke을 대하는 Richard의 태도는 처음에 확고하고 늠름하기까지 하다. 그는 합법적인 왕에게 당연한 복종을 요구하며 왕위의 신성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강한 비난은 차츰 약화되면서 결국에는 포기단계에까지 이르러 Bolingbroke이 어떤 것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을 'list' ring Phaeton'(178)에 비유하고 하늘 높이 나는 종달새 우는 곳에서 소리지르는 밤을빼미를 부르며(183) 감상에 사로잡힌다. 나중에 Westminster Hall에서 Richard는 아주 시적으로 자신의 슬픔과 고난을 표현해 동정을 사게 된다. 자신의 최상이 쓰여진 탄핵장을 공개적으로 읽도록 강요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현명할 지는 모르지만 잔인한 일이다. 즉 비위를 맞추고 알랑거리며 굴종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그와는 정말로 격에 맞지 않아 그에게는 고통스러울 지경이다.

Bolingbroke의 운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 Richard가 친히 왕관을 넘겨주도록 요구받는 장면은 Richard의 비참함을 가장 통절하게 만든다. 하지만 Richard는 극적으로 자기연민을 보임으로 결국 최고조에 이른 동정심을 희생시키고 만다.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볼 수가 없다고 하면서도 비탄이라는 충격을 받아 얼굴에서 깊이 패인 주름살을 찾으려 하다 나중에는 거울을 바닥에 던지면서 슬픔이 얼굴을 부셨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수난 당한다는 희생자적 품위가 심각한 감상주의로 변하게 된다.

이런 장면을 통해 Richard의 시적인 말재주는 훌륭하지만 과도한 감정은 역경을 통해 현명해지는 왕이기 보다 다른 한계성을 안고 있는 왕으로 기대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할뿐이다. Richard가 왕위가 단지 인간이 군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영역만을 갖게 하는 신성한 왕관만 줄뿐이고 자기 자신이 왕관에 걸맞도록 위대해져야 한다며 왕위에서 물러나면서 자신에게 매국노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는 사실을 회피하게나마 인식하고 있을 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통찰력의 영도

눈물에 녹아버린다.

Richard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에서 Shakespeare는 Brutus만큼이나 혹은 Titus, Richard III, Romeo보다 훨씬 주인공을 깨달음의 순간에 접근시키지만 여기에서조차 Richard는 마찬가지였다. 그가 인생에 있어 해야 할 많은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독백하는 이 장면에서 관객이 갖게 되는 Richard에 대한 믿음은 가장 완전하다. 그는 음률이 맞지 않는 음악소리를 우연히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broken time, unkept proportion'에 비교하면서 진정한 시대의 소리를 들을 만한 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I waste time, and now doth time waste me' (V, v, 49)라고 말한다. 비록 이 장면이후부터 그는 다시 한숨과 신음, 눈물로 현재 상황을 탄식하면서 자신의 영혼은 고향되어 그의 자리는 높은 곳에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죽지만 그 순간에는 권력이 있을 때이다. 그러나 그 장면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 전에 자객 2명을 죽이는 육체적인 용맹을 보이는 이례적인 순간과 함께 Shakespeare의 초기 극에서 다른 어떤 인물보다 비극상에 Richard를 가깝게 두고 있다.

IV

주인공에게서 미묘한 이중성을 유지시키는 근본적인 필수요소중 하나가 정치적인 이해타산과 마찬가지로 문학적인 면에서도 Bolingbroke이 악역으로 명확하게 부각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 Richard는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전폭적인 동정을 받게 된다.

1막 끝부분에서 비록 편파적인 Mowbray가 Bolingbroke의 진면목을 아주 빨리 왕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통해서이지만 최악의 가능성이 확실히 설정다. 더욱이 Gaunt의 죽음과 Richard의 재산몰수장면 사이에 Northumberland는 Bolingbroke이 추방령을 어기고 많은 추종자들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할 때 그 사건들이 수주가 수시간이 되는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Sprague의 지적(50)처럼 Shakespeare는 의도적으로 연대를 끼워 넣음으로 나중에 Northumberland가 말하지만 자신의 공작직위만을 찾으러 왔다는 Bolingbroke의 주장을 포용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Bolingbroke이 악한이 될 지 모른다는 가망성이 확신으로 변한 적은 한번

도 없는 이유는 Richard에게는 부족한 미덕인 지도력과 실용성을 왕의 상대역인 Bolingbroke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2막 3장에서 영국땅에 대해 Bolingbroke이 한 첫마디가 자신의 운이 동지들의 사랑으로 성숙되고 재산도 쌓일 때 동지들에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속좁은 야심가에게 이상하게 들릴 지 모른다. 그렇게 할 권리에 대한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는 왕의 간신배를 뿌리뽑겠다고 맹세하고 2장 이후에 왕의 처형권을 몰수해 Richard를 잘못 인도한 그들의 죄를 공식화시킴으로써 법적으로 그들의 처형을 정당화시킨다. 그리고는 Flint성에 있는 Richard에게 조심스럽게 화평을 제의하면서 그 조건으로 피비린내 나는 소란으로 국토를 더럽히기를 원치 않는다면 자신의 영토만을 요구한다. Bolingbroke이 온 것은 혈통에 따른 왕족권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Richard는 사실상 모든 것을 쥐버려 Bolingbroke은 완전한 동기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왕을 체포하는 인물이 됐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Bolingbroke이 Richard에게는 부족한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Richard는 처음에 처신을 잘못된 귀족간의 점증하는 분쟁을 연상케 하는 귀족들 사이의 소란을 승부의 판가름을 뒤로 미루게 해, 서로간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함으로 이를 확실히 포용한다. 그러나 Bolingbroke은 Richard와 달리 귀족들 사이의 모반자를 즉시 제압함으로 모반의 싹을 제거해 버린다. 그는 또 Richard에게 부족한 정치적 현명함을 보여주는데 Richard를 살해한 Exton을 마지못해 추방하는 장면에서처럼 비록 마음속으로는 기뻐하지만 죄를 선고할 필요성을 받아들인다. 다른 면에서 그는 Richard가 국민들에 대한 죄상을 기록한 서류를 공개적으로 읽도록 강요하지 않는 장면이나 자신의 사촌과 삼촌을 위해 자신을 제거하려 한 Aumerle를 용서하는 장면에서 자신은 진심으로 보복을 바라지만 선택적인 자비의 가치를 알기에 그렇게 한다. Bolingbroke에게 대항하는 Oxford음모사건을 진압하는데 있어 이 극에서는 Lancaster의 정책이 Gloucester부인의 힘없는 대항에서 Bolingbroke의 찬탈에 대항하는 귀족들의 음모에 이르기까지 왕실에 반대해 점증하는 격동을 비록 역사나 앞으로의 Shakespeare극에서는 아니지만 끝을 맺는다. 정통성이 있는 왕은 확실히 왕국에 평화와 질서를 가져다주지 못했지만 Bolingbroke에 대해서는 비록 그가 죄의식에 사로잡히지만 그가 가져다 준 승리와 안정은 아마도 관객에게서조차 잘못된 행동에 대해 충분한 정당성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Shakespeare는 Bolingbroke의 이중적인 성격요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떤 점에 있어서는 Bolingbroke의 연기연출이 상대역인 Richard에 대해 시시각각 변하는 태도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관객은 극을 통해 Bolingbroke이 적극적으로 왕관을 탐내고 있다는 기분 나쁜 인상을 받게 되지만 주어진 상황으로써는 그의 야망을 제대로 판단하기란 어렵다. 왜냐하면 그의 입장에서 드러난 행위는 어느 정도 왕의 실정과 정치적 오류 그리고 안일의 결과로 빚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Bolingbroke과 관객과의 관계는 끊임없이 유동적이지만 그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항상 Richard이다. Richard보다 더 효과적으로 Bolingbroke을 주인공에 투영된 그림자이다.

Richard의 이중성에 대한 perspective를 확립시키기 위해 Shakespeare는 예상된 행동을 나타내는 수많은 대사를 관객을 위해 계산해 넣었다. 비록 반복되고 인위적인 요소가 여전히 있지만 그런 대사가 대부분 그 연기에 아주 미묘하고 덜 눈에 띄게 효과적으로 결합한다.(Clemen 31)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대사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해 때로는 Bolingbroke의 애매성을 부각시키기도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Richard의 몰락과 쇠퇴를 예상케 하거나 이 극의 철학적 차원을 강화시킨다.

Bolingbroke과 관련한 애매성은 그의 본색이 조만간 드러날 것이라는 Mowbray의 대사(I, iii)와 Bolingbroke이 돌아올 때 더 이상 친구가 아닐 것(I, iv)이라는 Richard의 관찰에 의해 더욱 예민한 문제로 대두된다. 또 관객이 Richard의 불행에 대비하도록 하는 방책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먼저 Richard의 두 삼촌이 파멸로 이끄는 그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Gaunt는 죽어가면서 견잡을 수 없는 왕의 불길 같은 방탕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 이유로 대식이 같은 허영은 조만간 자신도 잡아먹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York도 죽은 Gaunt의 재산을 몰수함으로써 많은 위험을 자초하고 수많은 추종자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직접 Richard에게 경고한다.

감상적인 면에서도 Bolingbroke이 귀국하기 전에 운명의 태내에 만삭이 된 예기치 않은 슬픔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왕비의 직감(II, ii)과 바로 이은 Bushy와 Green이 헤어지면서 다시는 우리 셋이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불길한 Bagot의 확신을 들 수 있다. 조금 인위적인 요소가 있는 대사로는 2막 4장에서 Richard에게 충성스런 Wales군대가 더 이상 애란으로부터 왕의 귀국을 기다리지 않는데 그 이

유가 월계수가 시들고 유성이 나타나고 달이 창백해지며 예언가의 말이 왕의 죽음과 몰락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좀 더 정교한 장면이 3막 4장에서 나오는데 Langley에서 정원사들의 대화를 왕비가 엿듣는 장면이다. 여기에서 Shakespeare는 Richard를 유해한 잡초를 제거하지 못하고 빨리 자라는 나뭇가지를 치지도 못하는 무능한 정원사에 비유하기 위해 신빙성을 저버린 것이 확실하다. Margaret의 저주처럼 이 장면은 잘 짜여있지만 극의 중간에 위치해 뒤로는 왕권의 오용, 앞으로는 그 결과로 오는 죽음과 폐위를 다루고 있다.

극의 후반부에 가서 Shakespeare는 4가지 경우에서 Richard의 몰락이 장미전쟁의 불을 당길 것이라는 관객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먼저 Flint성에서 Richard는 그의 왕관에 찬탈의 손길이 미칠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 대대로 닥칠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III, iii) 둘째로 Carlisle이 그 유사한 예언을 함으로 종교적인 위엄을 더한다. Westminster에서 Bolingbroke이 왕위에 오르는 순간 그는 Bolingbroke이 왕관을 쓰면 영국민의 피가 국토를 기름지게 하고 미래는 이 극악무도한 행동으로 신음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IV, i) 그리고 대관식에 이어 그 점을 되풀이하며 '비통한 일이 일어났다. 이 날은 가시와 같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예리할 것이다.' 고 외친다. 마지막으로 Richard는 Tower 감옥으로 갈 때 Northumberland에게 같은 말을 한다. 그는 왕국의 절반을 쥐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몇 년 가지 못해 더러운 죄악이 머리를 물들게 할 것이고 새로운 모반이 전 국토를 오염시킬 것이라고 예언한다.(V, i) 이런 대사는 극에 있어 종교적인 차원을 강화시킨다. 왜냐하면 그 대사는 Bolingbroke이 성공적으로 이룬 찬탈을 넘어 있는 신의 법칙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신성함을 어겼는데 대한 재난은, 이 극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관객은 신의 냉혹한 정의가 긍정적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한다. 그 예언들은 또한 Shakespeare가 당시의 관객을 잘 아는 Elizabeth치세와 Richard의 치세간의 유사점을 찾아보도록 하면서 즉, Shakespeare사극이 Elizabeth시대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처럼(Campbell 125), 이 극을 15세기의 정치적, 역사적 상황 속에 둘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런 예언들을 위한 착상들은 극안에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왕권에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신의 힘을 제시하는데 작용하고 있다. 또 이런 착상들은 극을 벗어나 문제의 범위를 넓히는

데 작용해 더 풍부한 정서적이고 지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Bolingbroke를 포함한 주변인물들의 역할은 Richard의 이중성을 부각시키며 그의 비극적인 최후를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데 일조한다.

V

Richard치세의 마지막 1, 2년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Richard II*에는 사극과 비극의 특징들이 혼재되어 있어 사극적인 perspective와 비극적인 perspective을 가진 이중적인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진정한 비극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기에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왕이지만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면에서 Shakespeare의 초기 비극관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은 모순된 주인공의 성격등으로 인해 빚어지는 비극성은 역사속에서 겪는 개인의 운명을 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패자와 승자가 연결되는 역사의 연속성 속에서 비극의 주인공으로 Richard는 패자의 입장에서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신의 권위와 그 권위를 이용한 Richard의 왕권강화를 꾀하려는 음모는 이중적인 성격을 극에 부여하지만 결국 무능하고 감상적인 Richard가 몰락의 순간에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데서 비극이 주는 감동을 자아내게 하고 주변인물들이 이런 비극적인 면을 강화시켜주면서 이 극의 비극성을 돋보이게 한다.

인 용 문 헌

- Campbell, L. B. Shakespeare's Histories : Mirrors of Elizabethan Policy. San Marino : Huntington Library, 1947.
- Chambers, E. K. Shakespeare : A Survey. London : Sidgwick and Jackson, 1925.
- Clemen, W. The Development of Shakespeare's Imagery. Cambridge, Mass : Harvard U. P., 1951.
- Halliday, F. E. The Poetry of Shakespeare's Play. London : Duckworth, 1954.
- Hosley, Richard. ed. Shakespeare's Holinshed. New York : Putnams, 1968,
- Kantorowics, Ernest. The King's Two Bodies : A Study in Mediaeval Political Theology. Princeton U. P., 1957.
- Palmer, John. Political Characters of Shakespeare. London : Macmillan, 1948.
- Rabkin, Norman. Shakespeare and the Common Understanding. New York : Free Press, 1967.
- Richmond, H. M. Shakespeare's Political Plays. New York : Random House, 1967.
- Sen Gupta, S. C. Shakespeare's Historical Plays. London : Oxford U.P., 1964.
- Sprague, A. C. Shakespeare and the Audience. Cambridge, Mass : Harvard U. P., 1935.

Why A Multimedia Approach to English Education?

Sung-uk Keem⁵⁾

To make a long story short, about two years ago, I decided to experiment with a multimedia approach to my classroom instructions because my way of giving instructions bored the pants off me as well as my students. My way used to be sometimes referred to as a classical or traditional one, heavily dependant on the three elements : teacher's mouth, books, and chalk. Some call it the 'MBC method.' To top it off, I used to try audio-visuals such as tape recorders, cassette players, VTR, pictures, and you name it, that could help improve my teaching methods. And yet I have been unhappy about the results by a trial and error approach. I was determined to look for a better way that would ensure my satisfaction in the first place.

What really turned me on was when I ran into a multimedia CD ROM title, ELLIS(English Language Learning Instructional Systems) developed by Dr. Frank Otto. This is an integrated system of learning English based on advanced computer technology. Inspired by the utility and potential of such a multimedia system for regular classroom or lab instructions, I designed a simple but practical multimedia language learning laboratory in 1994 for the first time in Korea(perhaps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It was high time that the conventional type of language laboratory(audio-passive) at Hahnnam be replaced because of wear and tear. Prior to this development, in 1991, I put a first CALL(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laboratory equipped with 35 personal computers(286), where students were encouraged to practise English typing, word processing and study English

5) 한남대학교, 한국 멀티미디어 언어교육학회장